

책제목에 의성어 · 의태어가 '와글와글'

어린이책과 실용서 중심으로 가볍고 발랄한 이미지 심어줘



요즘 서점이 시끌벅적하다. 사과가 '쿵' 떨어지는가 하면, 고정관념이 '와장창' 깨지고, 털뭉치가 '데굴데굴' 굴러다닌다. 한편에선 '쿨쿨' 이와 '뽕뽕' 이 친구들이 물려다니고, '꽁꽁' 대며 응가하거나 '으아앙' 우는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세상에! 이것이 요즘 서점풍경이라고? 그렇다. 이들은 바로 서가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발랄하고 재미있는 책제목들이다. 근래 책제목에는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가 북적대고 있다.

어린이의 언어습득 과정과 밀접해

《어떻게 뽕뽕 돌려》(김은숙, 한국독서지도회), 《빠금빠금 물속 친구들》(박윤규, 산하), 《또르르 팔랑팔랑 귀여운 곤충들》(밥 바너, 창작집단바리, 중앙출판사), 《번쩍번쩍 우주》(김 송, 계림), 《털석 데구르르》(나카노 히로다카, 엄기원, 한림출판사), 《우당탕 공룡세상》(양승욱, 두산동아), 《으아앙! 우는 아기 달래기》(크레시다 코웰 · 잉그리드 고든, 송은희, 베이비북스)··· 이처럼 의성어와 의태어가 빛을 내는 책들은 한번에 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많다.

위 책들에서 알 수 있듯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한 책제목은 특히 어린이책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의 언어습득 과정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필연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신은수 교수는 "아이들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표상능력을 획득한다. 또 반복을 좋아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현장의 교사들

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인지능력발달과 사고력신장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과가 쿵!》(다다 히로시, 정근, 보림)은 원제도 '사과가 쿵!'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됐을 때, 평단과 어른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으나 아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뒤늦게 주목받은 작품이다.

《야구가 야단법석》(기영노), 《수학이 수군수군》(샤프탄 포스키트, 유광태), 《끄덕끄덕 그리스신화》(테리 디어리, 이경덕) 등 기발한 제목의 책들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영사의 <앗!> 시리즈다. 김영사 정운경씨는 "〈앗!〉 시리즈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학습서다. 각 제목들은 재미있는 책 내용을 잘 나타내고, 시리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낱말을 골라 내부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고 말한다. 또 '〈앗!〉 시리즈'라는 이름은 출판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 사이의 통칭이 시리즈 이름으로 굳은 경우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 책 제목을 짓는 것은 실용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최윤희씨가 펴낸 《고정관념 와장창 깨기》(현대문학북스)와 《어디서 감히 짹짹》(여성신문사)이 그 사례다. 또 《뽕뽕뽕 119 소아과》(하정훈, 그린비)나 《직독직해의 기적! 쪽쪽 읽어라》(김인규, 비전), 《콧콧 찍어주는 꼬꼬 생활영어》(김완수, 국제어학연구소) 등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문학북스 김이금 주간은 "실용서는 제목에 정보를 담아야 한다. 어른이 독자인 책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면 유치하고 가벼울 수 있지만, 제목부터 독자들의 부담을 줄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른 의성어 · 의태어 사용해야

우리말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장점이 허다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의할 점도 여러 가지다.

어린이에게는 발달단계에 맞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른 아이 모두 재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어나 속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개 부모들은 아이에게 조금 큰 옷과 운동화를 사 입히는 것처럼 교구나 교재도 아이의 발달단계를 앞서는 것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따르지 못하는 교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언어치료사 이현경씨는 "의성어와 의태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의 어휘습득을 제한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과당했어?' 보다는 '과당 넘어졌어?' 라고 의성어와 의태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신은수 교수는 "의성어와 의태어사용은 언어능력발달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재미로 비어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력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다. 그러나 상투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토끼는 늘 강충강충 뛰고, 비는 언제나 주룩주룩 내리는 유형화된 언어환경이 조장되고 있다"는 보림 최정선 편집장의 우려는 깊이 새길 만하다. 지은이와 편집자, 독자 모두 언어환경의 유형화와 자극을 위한 의성어 · 의태어 남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차정신 기자